

“학교 부적응 학생 결코 포기해선 안돼”

전북 동화중 김범주 교사, 옥조근정훈장 수상

김범주(52·사진) 전북동화중 교사가 제2회 ‘내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청와대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 23일 훈장을 수여한 김 교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어려운 현실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립한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인 전북동화중에 2011년 부임한 이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치유와 복불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 봉사해 왔다.

실제 김 교사는 수학교사로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땀의 소중함과 창작의 기쁨을 주기 위해 목공교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친구 대신 교사와 함께하는 야간 행군, 산악 등반 등을 통해 반성의 기회와 상담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에게는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크불만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시간에 자율동아리 복싱부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자율적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동아리 성격의 자기주도 학습법을 편성해 매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 야간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했다.

김 교사는 이날 전체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진정성”을 강조했다.

김 교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면서 “이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교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 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엄마의 밥상’에 성금 전달

휴비스는 25일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엄마의 밥상은 지난 2014년부터 전주시가 아침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침 밥상을 책임지는 취지로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이다.

운필만 공장장은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희망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엄마의 밥상이 꾸준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덕진구, 상반기 여성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취업·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도 상반기 여성취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베이비시터전문가(15명), 아동요리지도사(15명)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시 교육비(수강료·제료비 포함)의 80%까지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덕진구 거주 여성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 우선 선발)이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영화동 BYC 빌딩)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 여성수사팀, 4대 사회악 수사역량 강화 연구모임 가져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백성구)는 25일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기정·학폭죄 등 4대 사회악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두루박 연구 모임’을 가졌다.

전라도 사투리로 ‘지식정보를 퍼 올려 공유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두루박 연구모임’은 GPS위치 추적, 소년범, 성범죄 등에 관한 수사 기법과 관련 회신 판례 등을 공유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구 모임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출동시의 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와 임시조치 요청, 가정폭력 쌍피 사건의 임시조치 사례 연구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노영 기자

정읍경찰 모범경찰관 선정·격려 간담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25일 외부 식당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업무 의욕이 넘쳐나고 티의 모범이 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통·화합을 통해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 고부과 출소장 경감 이강우 등 8명의 모범경찰관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유무선 통신망 구축, 성폭력 피해자 상담, 강력 사건 사전 예방, 치매노인 생명 구조, 자살기도자 구호 등 4대악 활동사고 예방 활동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만족의 장으로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카네기클럽, 전주 효자4동 방문 쌀·라면 전달

(사)전북카네기클럽(회장 곽인숙)은 25일 효자4동(동장 장봉근)을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전해달리며 쌀과 라면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쌀과 라면은 효자4동 관내 초·중·고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10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곽인숙 회장은 “관내 초·중·고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쌀과 라면을 지원해 줬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봉근 효자동장은 “꾸준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카네기클럽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해주시 물품은 꼭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최기선(신성건설 전무, 제일건설 이사, 에버증합건설 대표, 전주마일 감사 최신정, 김정자씨 장남)군·김영원(하나 بن영 근무, 김정아씨 장녀)양 = 일시: 3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전주 엔티우먼트센타워딩 1층 비호홀, 연락처: 010-3673-7300, 010-7250-0060

전주매일 www.jmma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50-8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로승동)

부회장 서재철 발행·편집인 김동만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부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0074 남원지사 033-3398 고창지사 580-6099
010-905-4113 인후지사 246-8665 김제지사 547-8665 임실지사 010-902-2773
심천지사 송동지사 259-2404 원주지사 246-86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4911 평택지사 259-8884 담양지사 632-0195 정읍지사 538-33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6-015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682-9107
효자지사 010-805-9835 익산지사 8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덕진구 생활복지과 직원 친절교육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생활복지과에서는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의 첫 걸음 생활준비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친절미인도 함양교육 및 응급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생활복지과장은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인 전화응대의 중요성과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상황에 맞는 예의바른 대화법 등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자동제세동기(AED) 작동방법을 직접 실습하고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응훈련도 진행됐다.

송체육 생활복지과장은 “생활복지과 직원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주요 대상이다”며 “앞으로도 업무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자체교육을 통해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 동산동 농악교실, 주민 안녕기원 길긋행사 열어

동산동 주민센터(동장 정용환) 농악교실(강사 노순례) 회원 20여명은 25일 한 해 애운을 없애고 풍년농사 및 주민 안녕을 기원하는 길긋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악교실 회원들이 재능나눔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동산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기관단체 및 관내 상점가를 찾아 주민과 풍요를 기원했다.

정용환 동산동장은 “전통 세시풍속이 지역 주민의 단합과 민속 문화 발전 및 계승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농악 놀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풍년농사와 주민 안녕을 기원해 준 농악교실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사랑의 희망 구들장’ 사업 펼쳐

완산구청(구청장 최학희) 1층 로비에서는 25일 이웃사랑 나눔행사 일환으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의 희망 구들장’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 희망(希望) 구들장 사업을 통해 완산구 관내 47세대 저소득층 가정에 봄 이불을 지원했다.

그 동안 완산구는 이웃사랑 나눔행사 1차에서 500만원 상당 물품을 마련해 이웃사랑 ‘복(福) 구리미’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독자기에게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학희 완산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삶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된다”며 “완산구는 연중 이웃돕기 칭구를 열어놓고 있으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경섭 덕진구 자율방범연합대 회장 취임

전주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 회장에 임경섭씨(사진)가 25일 취임했다.

임경섭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덕진구 자율방범연합대는 평소 내고장 발전과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맑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통캠페인과 아간순찰에 충실히 참여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받는 자율방범대로 거듭나기 위해 청소년 폭력근절과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자”며 “4대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계몽과 자라는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완산경찰 서학파출소, 시민경찰 9기 월례회의 참석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소장 김일철)는 지난 24일 시민경찰 9기 월례회의에 참석해 공감치안 우수사례 소개 및 4대악 근절, 절도예방, 난폭·보복운전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시민경찰과 성심여고 경찰체험단이 합동으로 매달 두 차례 범죄예방 순찰에 동참하고, 일 평에 폴출소장 제도 운영 등 민경협력방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이노영 기자